

GTX-A 수서~동탄 3월 30일 개통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!

- 29일 수서역에서 개통기념식... 30일 05시 30분부터 첫 열차 운행
-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, 주거·공간 인식을 바꾸는 교통 혁명 시작

-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A노선 수서~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29일 수서역에서 GTX-A 수서~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을 개최하고, 3월 30일 05시 30분 첫 열차 운행(동탄→수서행, 수서→동탄행은 05:45분)을 시작으로 **영업 운행을 개시**한다.
 - 개통기념식에는 정부, 지자체,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-A 수서~동탄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시·경기도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. 기념식 직후 참석자들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운행하는 GTX 열차를 직접 시승했다.
- GTX-A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.
 -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GTX-A 노선(과주 운정~화성 동탄, 82.1km) 중 수서역, 성남역, 구성역(6월말 개통 예정)을 거쳐 동탄역까지 32.7km 구간이며, 총 2조 1,34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.
- GTX-A 노선은 '09년 예비타당성 조사(삼성~동탄 구간)를 완료한 이후, '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'16년 10월 착공하였다.
 - GTX는 SRT 고속열차와 약 28km 선로를 함께 사용하므로 일부 공사는 SRT 운행이 종료된 이후 새벽 짧은 시간 동안에만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.
 - '23년 초에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부족 상황을 겪기도 했다. 그러나 최적의 공정 관리를 통한 철저한 일정 관리로 착공 후 약 7년 만인 '23년 11월 주요 공사를 마쳤다.

- 한편,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GTX-A 열차는 현대로템이 '22년 12월 첫 차를 출고한 열차이다. 이후 '23년 3월부터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. 같은 해 12월부터는 시설물 검증시험, '24년 2월부터는 영업 시운전을 실시하여 시설물 및 열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철저히 검증했다.
-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2차관을 단장으로, 관계기관*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 준비 TF를 구성하였다. TF는 건설·차량·종합시험은행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왔다. '23년부터는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약 500회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.
 - *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SR, 현대로템, S그래일(서울교통공사) 등
- 또한, 서울·경기·인천 등 협업이 필요한 지자체와는 GTX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 사항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.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GTX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 중인 버스·전철 간 환승 할인 요금 체계를 적용키로 합의하는 성과도 이뤄냈다. (23.10.24일 보도참고자료 참조)
- GTX-A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주요 과정마다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했다.
 - 열차 디자인 선호도 조사('20.9), 실물 차량 품평회('21.4), 대심도 안전 아이디어 공모('21.4), GTX 국민 참여단 출범('23.4) 및 노선명 공모('23.8) 등*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사업에 반영했다.
 - * 'GTX 개통, 달라질 나의 일상' 영상·사연 공모('24.3)
 - 특히, 개통을 앞둔 3월 한 달간은 교통약자, 인근 주민,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일반국민 200여 명 등이 참여하는 안전점검도 실시했다.
 -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GTX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역사와 열차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조치했다.
- GTX-A 열차에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이용자들이 한층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.

- 열차는 최고운행속도 180km/h로 제작하였다. 차량 앞면부를 유선형으로 만들어 고속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, 경량화된 알루미늄 차체를 사용하여 고속 주행을 위한 감·가속 성능도 높였다.
- 객실에는 공기정화장치와 항균 기능이 있는 친환경 불연 카펫을 사용하였으며, 객실 의자에는 좌석 분리대를 설치했다. 좌석폭도 일반 전철보다 약 3cm 넓게(일반 450mm → GTX-A 480mm)하여 쾌적함을 높였다.
 - 또한, LCD 표시기(37인치)를 객실당 10대를 설치하여 열차 내 어느 곳에서나 열차 운행 및 정차역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.
- 특히, 국내 최초로 객실 창문에는 투명 디스플레이(55인치, 객실당 2개)를 설치하여 큰 화면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.

【 바닥 친환경 카펫 】



【 객실 의자 및 좌석분리대 】



【 LCD 표시기(객실당 10개) 】



【 객실 창문 투명 디스플레이(객실당 2개)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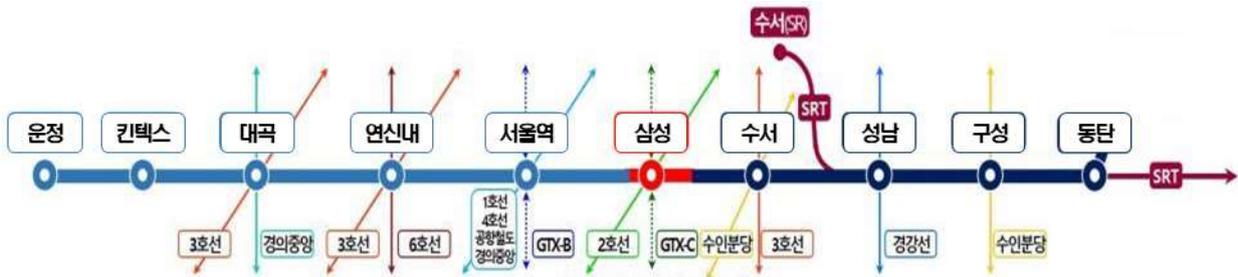
- 3월 30일 GTX-A 수서~동탄 구간 개통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.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(1899년) 이후 125년, 서울지하철 개통(1974년) 50년 및 KTX 개통(2004년) 20년 만이다.
- GTX를 이용하면 수서~동탄 구간(32.7km)을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. 버스·전철(80분) 등을 타는 것보다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,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의 문화도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집에서 일터까지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직주근접의 공간적 제한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된다.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등 우리 국토 공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공간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 줄 GTX의 효과를 국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”면서,
- “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, 광역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GTX를 빠르고, 안전하고,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이후에도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서정관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담당자	서기관	이상욱 (044-201-3981)
		담당자	사무관	심보경 (044-201-3967)
		담당자	주무관	안남현 (044-201-3978)
		담당자	주무관	송인규 (044-201-4024)



□ 사업개요

- (사업구간) 파주 운정~화성 동탄*, 82.1km / 10개 + 1개역**
 - * 재정구간: 삼성~동탄 39.5km, 민자구간: 운정~삼성 42.6km
(삼성역 구간 1km는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하여 서울시에서 위탁 건설 중)
 - ** 창릉역은 창릉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별도 건설 추진 중
- (사업방식/기간) 수익형 민자사업(BTO)+재정, 59~78개월
- (총사업비) 5조 7,506억원 * 재정: 2조 1,349억원, 민자: 3조 6,157억원



□ 주요 추진경위

< 재정구간(삼성~동탄) >

- '09. 8 : 삼성~동탄 노선 예타통과(B/C 1.05)
- '15. 3 : 삼성~동탄 기본계획 고시(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159호)
- '16.10 : 2, 4공구(T/K) 계약 및 착수
- '19. 3 : 1, 3, 5공구(기타)실계약 및 착수
- '24. 3 : 수서~동탄 구간 개통 * 구성역은 6월말 개통 예정

< 민자구간(운정~서울역) >

- '14. 2 : A노선(일산~삼성) 예타 통과(B/C 1.33)
- '17.11 : 파주연장선(운정~일산) 예타 통과(/C 1.11)
- '17.12 : A노선(운정~삼성) 민자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
- '18.12 : 실시협약 체결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
- '19. 6 : 공사 착공

□ 향후계획 : '24.3.30일 수서~동탄 개통 → '24.末 운정~서울역 개통

